

# 군산,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확대

## 중국수출 기지화 목표로 대규모 면적 조성 ... 150사 추가입주 추진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가 <자동차 부품 집적화 단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1월19일 “군산으로 몰리고 있는 국내외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을 수용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집적화 단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 토지공사, 전라북도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성중인 자동차 부품 집적화 단지(46만㎡)와는 별도로 인근에 132만㎡ 규모의 집적화 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중국수출의 전진기지를 확보하려는 국내외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을 수용할 방침이다.

2002년 6월에 지정된 현 자동차 부품 집적화 단지는 전체 면적 가운데 81%인 37만2000여㎡가 14사에 분양됐으며 나머지 8만9000여㎡도 6사가 입주를 추진중이어서 2004년 6월 말이면 모두 분양이 완료돼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추가로 132만㎡ 규모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150여개 기업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산자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은 산자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특화 사업이다.

현재 조성중인 집적화 단지는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4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06년까지 집적화 단지 내에 연건평 1만3천200㎡ 규모의 <자동차 부품 산업 혁신센터>가 들어서 자동차 부품의 기술혁신과 지원체제를 갖추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단지가 활성화되면 부품 생산기반이 구축돼 완성차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1/20>